

재직자의 고등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 수요 분석

- 재직자들의 고등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사는 40대(85.4%)와 사무직(81.5%)에서 가장 높으며, 학력이 올라갈수록 참여 의사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.
- 재직자들은 고등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 결정 시 교육내용의 전문성(56.9%)과 현업적용도(50.3%) 등을 주요하게 고려함.
- 40·50대가 20·30대보다, 관리자·전문가가 서비스·판매직보다, 대졸 이상이 고졸 및 전문대졸보다 고등교육기관의 평생직업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.
- 재직자들은 자격증 취득(49.1%), 직무 관련 전문 이론·기술(46.8%), 최신 산업·기술 트렌드(43.6%) 등 교육 결과의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선호함.
- 고등교육기관은 재직자의 특성 및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, 재직자의 평생직업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.

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

| 주 |

이 글은 '최동선 외(2021), 「미래 환경 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평생직업교육 내실화 방안」, 한국직업능력연구원'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, 재정리함.

| 고등교육기관이 미래 환경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평생직업교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직자의 고등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.

- 고등교육기관은 성인학습자의 직업·진로 및 경력개발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음.
 - 학령인구 감소 등의 사회변화로 인해 고등교육기관이 적극적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됨.
- 평생직업교육에 있어서의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성인학습자가 고등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에 대해 어떤 수요를 갖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음.
 - 이에 따라 여기서는 재직자를 중심으로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 수요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.

| 분석 자료: 한국직업능력연구원, 「성인의 고등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 수요 조사(2021)」

- 분석 대상: 성별, 지역, 업종, 직종을 고려하여 표본 추출한 만 25~55세 재직자 1,500명
 - 성별로는 남자 58.7%, 여자 41.3%, 연령대별로는 20대 18.1%, 30대 25.6%, 40대 30.5%, 50대는 25.7%임.
 - 직종별로는 관리자·전문가 32.0%, 사무직 26.7%, 서비스·판매직 21.3%, 기능·기계조작직은 20.0%임.
 - 최종 학력별로는 고졸 11.9%, 전문대졸 16.5%, 대졸(4년제 대학) 60.3%, 대학원졸 11.3%임.
- 조사 방법: 2021.8.23.-9.1.까지 온라인 패널을 활용해 데이터 수집



02 고등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 참여 의사

재직자들의 고등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사는 40대가 가장 높고, 학력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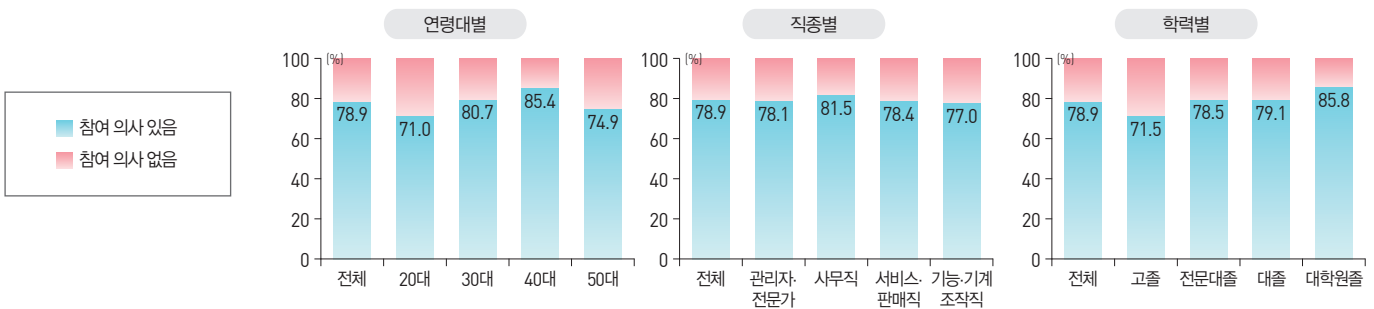
- 고등교육기관에서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재직자의 78.9%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연령대별로 살펴보면, 고등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비율은 40대 85.4%, 30대 80.7%, 20대 71.0%, 50대 74.9% 순으로 높고,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.¹⁾
 - 직종의 경우 사무직 81.5%, 서비스·판매직 78.4%, 관리자·전문가 78.1%, 기능·기계조작직 77.0% 순으로 높은 참여 의사 비율을 보였으며,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음.²⁾
 - 고등교육기관이 제공하는 평생직업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,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.³⁾

각주

1) $\chi^2=26.337, p<.001$

2) $\chi^2=2.485, p>.05$

3) $\chi^2=10.737, p<.05$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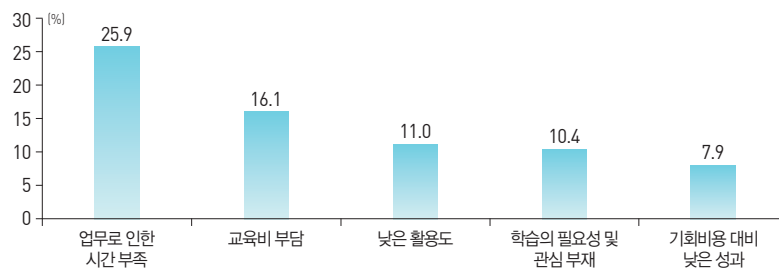
[그림 1] 재직자의 고등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 참여 의사

평생직업교육에 참여 의사가 없는 재직자들은 ‘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’ 등을 주된 이유로 꼽음.

-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가 없는 재직자들은 그 이유로 ‘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(25.9%)’, ‘교육비 부담(16.1%)’, ‘낮은 활용도(11.0%)’ 등을 제시함.
 - 재직자들이 역량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더라도,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교육에 참여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보여줌.

주

고등교육기관 재직자 대상 역량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317명의 응답을 정리한 결과임.



[그림 2] 참여 의사가 없는 이유 상위 5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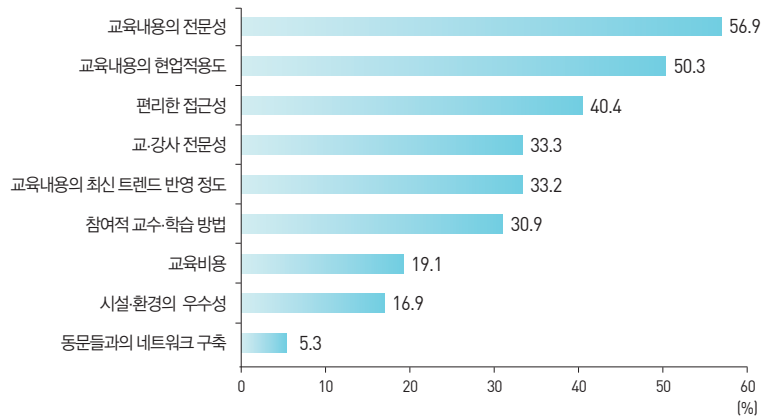
03 고등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 결정 시 주요 고려 요인

재직자들은 고등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교육 내용의 전문성과 현업적용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함.

- 재직자들이 고등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를 결정할 때 가장 주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‘교육내용의 전문성(56.9%)’과 ‘교육내용의 현업적용도(50.3%)’임.
 - 이는 재직자들의 경우 직무와 관련해 전문적이고 활용 가능한 교육내용일 경우 기꺼이 고등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용의가 있음을 보여줌.

- 이 외에도 재직자들은 '편리한 접근성(40.4%)', '교·강사 전문성(33.3%)', '교육내용의 최신 트렌드 반영 정도(33.2%)', '참여적 교수·학습 방법(30.9%)' 등을 고등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 결정 시 주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.

주
최대 3개까지 선택하도록 한 중복
응답 문항임.



[그림 3] 고등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 결정 시 주요 고려 요인

04 재직자의 고등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수요

재직자들은 고등교육기관이 기술변화에 대응한 역량개발 교육을 운영한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함.

- 재직자들은 고등교육 기관에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운영한다면, '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초역량(3.72점)', '현재 직무에 새로운 기술을 반영할 수 있는 전문역량(3.70점)', '직무 전환 및 이직 등을 위해 현재 직무와는 다른 분야에 대한 역량 개발(3.64점)' 순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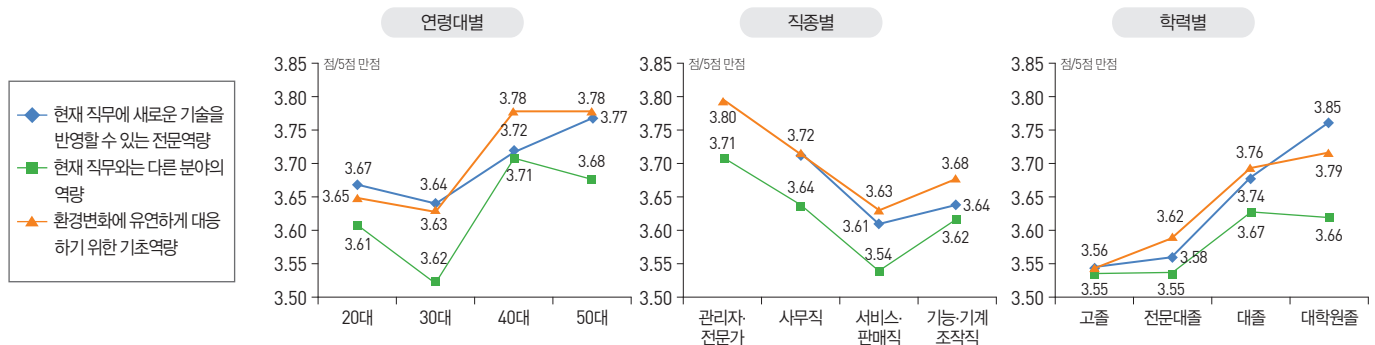
〈표 1〉 고등교육기관의 기술변화에 대응한 역량개발 교육 운영 시 도움 정도(1): 전체

(단위: 점/5점 만점, %)

구분	응답자 수	평균	표준편차	긍정응답률
현재 직무에 새로운 기술을 반영할 수 있는 전문역량	1,500	3.70	.821	65.1
직무 전환 및 이직 등을 위한 현재 직무와는 다른 분야의 역량	1,500	3.64	.869	60.1
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초역량	1,500	3.72	.854	62.7

주
1) 응답 범위는 '① 매우 낮음 ~
⑤ 매우 높음'임.
2) 긍정응답률은 '④ 그런 편임'과
'⑤ 매우 그러함'의 응답 비율을
합한 값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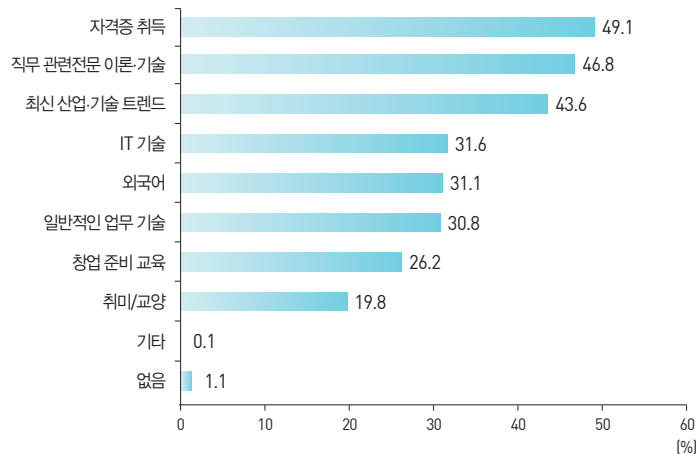
- 40대와 50대가 20대와 30대보다 고등교육기관의 기술변화에 대응한 역량개발 교육의 도움 정도를 높게 인식함.
- 관리자·전문가와 사무직이 기능·기계조작직과 서비스·판매직에 비해 도움 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.
-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도움 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남.



[그림 4] 고등교육기관의 기술변화에 대응한 역량개발 교육 운영 시 도움 정도(2): 응답자 특성별

재직자들은 자격증 취득, 직무 관련 전문 이론·기술, 최신 산업·기술 트렌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- 재직자들이 가장 참여하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은 '자격증 취득(49.1%)'으로, 교육의 이수 결과가 가시적이고 인증된 형태로 나타나 승진이나 이직 등에 활용될 수 있기를 선호하는 재직자의 특성을 보여줌.
- 이 외에도 재직자들은 '직무 관련 전문 이론·기술(46.8%)', '최신 산업·기술 트렌드(43.6%)'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.
- 이는 고등교육기관이 다른 교육훈련기관보다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재직자들의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.



[그림 5] 참여하고 싶은 고등교육기관 재직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

주 |
최대 3개까지 선택하도록 한 중복
응답 문항임.

05 시사점

- 재직자들은 고등교육기관에서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기꺼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참여 의사가 없는 재직자들의 경우, 시간 부족이나 교육비 부담, 교육 결과의 낮은 활용도 등으로 인해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함.
- 재직자들은 자격증 취득이나 직무 관련 전문 이론·기술, 최신 산업·기술 트렌드에 관한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선호를 보임.
- 한편, 연령대, 직종, 학력에 따라 고등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의 참여 의사나 기술변화에 대응한 역량개발 교육 운영의 도움 정도 인식이 다른 경향을 보임.
- 이러한 결과는 고등교육기관이 재직자를 대상으로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, 대상의 특성과 교육내용의 직무 연관성, 교육결과의 활용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.
 - 재직자 대상의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은 높은 전문성과 현장적용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.
 - 40·50대 대상의 기초역량 교육, 관리자·전문가 및 사무직 대상의 전문역량 교육 등 대상별 수요에 맞춘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음.
 - 아울러 재직자의 평생직업교육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.

최 동 선 (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)
류 지 은 (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)
김 남 희 (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)
이 상 훈 (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)